
지방공무원의 정보격차 분석

Information Divide of Public Servants

-Focused on Chungbuk Provinces-

지봉구*, 박구원*, 박진우**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Bong-Gu Jee(tourinfo@cju.ac.kr)*, Koo-Won Park(parfor@cju.ac.kr)*,
Jin-Woo Park(jwpark@kau.ac.kr)**

요약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정보를 생산, 활용, 평가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기술 적용은 정보화 투자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정보화 적용 부분을 조사하는 한편, 연구대상을 지방정부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제안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정보격차 | 공무원 정보화 차이 | 정보활용능력 |

Abstract

The Information society is accelerating its speed of change with the IT technology at the center of it and the society as a whole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he purpose of study is to reveal the information gap among the public servants of Chungbuk Province.

For that reason this study on the information gap of the officers is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IT. First, A theoretical approach has been made about Information Divide. Second,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on the information divide use frequency analysis, means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t-test.

■ keyword : | Information Divide | Information Gap of Public Servants | Information Literacy |

1. 서론

1. 문제제기

정보의 중요성 확대와 함께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화가 우리 인류의 숙명

처럼 거대한 물결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 침투 흡수되고 있다. 정보화는 산업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정보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지식사회와 디지털경제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5년에 제정되고 1996년도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행정정보화 사업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99년도 행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작고 강한 전자정부 구현을 기본목표로 삼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개선, 정보기술기반 등을 하위 목표로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정보화관련 법제도 개선,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및 응용기술 보급확대,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계획에 포함하고 있다[1-2].

정보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이 높아져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정보화 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기술 적응은 정보화 투자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3].

따라서, 본 논문은 관광관련 지방공무원의 행정정보화 적응 부분을 조사하는 한편, 연구대상을 지방정부로 한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규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지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도청근무자)과 시군자치단체 공무원(충청북도의 12개 시군 근무자)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정보활용 차이와 조직특성 차이로 한정하여 공무원의 정보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보화 차이를 분석하고자 각종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통계 기법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SPSS 12.00을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연구

1. 정보 격차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데, 이러한 정보격차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4].

정보이용에 있어 격차는 '정보격리(information apartheid)', '정보부자와 정보빈자(info haves and have-not)', '기술격차(technology gap)',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 '정보혜택(digital dividend)',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등 여러 가지로 명명되고 있다[5].

선행연구된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정리하면 정보격차에는 주체별, 대상별, 심화정도별, 그리고 매카니즘별로 대별된다. 첫째, 정보격차의 주체에 따라 성별간[6-9], 직업간[10-13], 계층간[14-17], 세대간[18-22]지역간[23-26]의 정보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간, 장애인과 일반인간[27-31], 국가간에 있어서도 정보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아날로그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 일상생활 정보격차와 업무관련 정보격차가 있을 수 있다[32].

셋째, 정보 격차의 심화정도[33]에 따라 정보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정보취약,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보단절, 그리고 집단간 정보보유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계층화 혹은 정보계급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유통의 여러 측면에 따라 정보접근 차이[34], 정보인식차이, 정보활용차이[35-38], 정보생산차이 등이 존재한다[39].

위와 같이 정보격차는 다차원의 복합 개념이므로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한정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 행정부의 정보격차 관련 언급들도 디지털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40].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질적인 문제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공무원집단에서는 디지털정보의 접근 및 이용여부보다는 이용하는 정보의 질적 격차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2.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격차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대체적으로 3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고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 단말기와 모뎀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소유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보원에 접근하는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킨다[42].

둘째,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관련된 인구통계적 특성과 인식의 차이로 인해 정보화 격차가 발생한다. 첨단 정보기술은 그 사용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적응력과 컴퓨터 해독력 등을 요구하는 데,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특성과 관련성을 갖는다[43].

마지막으로 조직요소는 소속집단의 정보화 인식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조직의 정보화 예산이 많이 투자될수록 정보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 구성원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체장이 소속된 조직이 정보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고 분석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기기의 사용환경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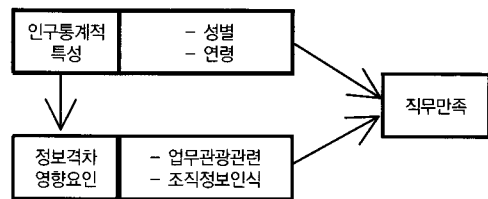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II.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충북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의 정보이용현황, 소속 집단의 정보이용, 직무 만족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은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보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정보화 교육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과 대상

본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집단의 선정은 충북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둘째, 조사방법은 도청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설문조사시 유의할 사항과 조사 목적은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설문대상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설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표본의 크기는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27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응답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한 247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이론조사를 통하여 크게 3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1단락은 공무원 개인의 업무관련 정보이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단락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이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락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조사항목으로서 성별, 연령, 직업 관련사항 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채택된 통계분석기법은 우선,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의 기초통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이용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효표본 247명을 대상으로 일반항목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표본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총 응답자 247명 중 남자가 196명으로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가 51명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있어서 10대는 19명으로 7.7%, 20대는 106명으로 42.9%, 30대는 94명으로 38.1%, 40대는 28명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6	79.4
	여자	51	20.6
연령	20대 이하	19	7.7
	30대	106	42.9
	40대	94	38.1
	50대 이상	28	11.3
학력	고졸 이하	40	16.2
	대졸	191	77.3
	대학원 졸업 이상	16	6.5
직급	5급 이상	17	6.9
	6-7급	149	60.3
	8-9급	74	30.0
	기타	7	2.8
임용방식	공채	216	87.4
	특채	26	10.5
	기타	5	2.0
근무분야	기획/예산	39	15.8
	자치행정/총무	28	11.3
	사회복지/문화	152	61.5
	경제/산업	24	9.7
	환경/보전	4	1.6
근무처	도청	67	27.1
	시/군 본청	169	68.4
	직속기관 및 사업소	6	2.4
	기타	5	2.0
합계		247	100.0

셋째, 공무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0명으로 16.2%, 대졸이 191명으로 77.3%, 대학원 이상이 16명으로 6.5%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5급이상이 17명으로 6.9%, 6-7급이 149명으로 60.3%, 8-9급이 74명으로 3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 공무원들의 근무처는 도청 근무가 67명으로 27.1%, 시/군 본청 근무가 169명으로 68.4%,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타가 11명으로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척도로 사용된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조사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신뢰도분석

우선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해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내적 일관성법은 문항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로바하 알파(Cronbach α) 신뢰계수의 값은 90.9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신뢰도 분석

	평균	표준 편차	항목 제거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문서 작성을 한다.	4.18	.621	.90	.91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17	.566	.89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우편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09	.635	.89	
전자결재를 활용한다.	4.24	.647	.89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4.15	.582	.89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 두고 있다.	4.10	.610	.89	
검색한 정보를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다.	4.00	.653	.90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자와 교환하고 있다.	3.79	.701	.91	.836
정보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최고결정자의 이해가 높다	3.77	.736	.787	
업무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적절하다.	3.50	.759	.826	
최고정책결정자의 전자결재 활용율이 높다.	3.98	.683	.807	
최고정책결정자는 컴퓨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96	.712	.781	
인터넷 등의 활용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해졌다.	3.87	.654	.813	

공무원의 정보화 인식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정보화 인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총 13개의 변수가 이용되었는데, 초기 요인분석에서 공통성 추출을 통해서 각 변수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0.4이하이면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0.4이하로 나타난 항목이 없어 총 13개의 변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추출된 요인은 총 분산의 약 61.2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KMO값은 .901를 나타내고 있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2 가 1747.884(df=78, Sig=.000)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은 직각(Varimax) 회전법을 시행하여 요인해석을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2개의 요인은 그 구성변수를 검토하여, 각각 '개인정보활용'요인과 '조직의 정보인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3. 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보화 차이 분석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13개의 문항을 2개의 요인으로 재조정하여 직무만족도와외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정보활용과 직무만족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3]처럼 나타났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비율
개인 정보 활용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828	4.803 36.947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826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 두고 있다.	.816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우편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808	
	전자결재를 활용한다.	.745	
	검색한 정보를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다.	.720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문서작성을 한다.	.700	
조직의 정보 인식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자와 교환하고 있다.	.593	3.165 61.297
	최고정책결정자는 컴퓨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805	
	정보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최고결정자의 이해정도가 높다.	.782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해졌다.	.729	
	최고정책결정자의 전자결재 활용율이 높다.	.728	
업무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적절하다.	.720		

주: KMO=.901, Barlett 검정치 χ^2 =1747.884, df=78, Sig= .000

표 4. 응답자의 배경요인에 따른 정보활용 차이분석

		정보활용		조직수용		직무만족도	
성별	남(196)	4.1195	-.730	3.8061	-.652	3.38	-3.38
	여(51)	4.1765	.466	3.8627	.515	3.71	.3
연령	20대 이하	4.1203		3.8737		3.47	
	30대 이하	4.0997	.594	3.7377	3.773	3.41	.864
	40대 이하	4.1368	.620	3.8064	.011*	3.44	.460
	50대 이하	4.2398		4.1214		3.64	
학력	고졸이하	4.0893		3.8200		3.38	
	대졸	4.1384	.175	3.8272	.391	3.47	.405
	대학원 이상	4.1518	.839	3.7000	.677	3.38	.667
직급	5급이상	4.3529		4.5176		3.76	
	6-7급	4.1352	1.836	3.7503	11.58	3.44	1.321
	8-9급	4.0598	.141	3.7757	3	3.39	.268
	기타	4.2653		4.0000	.000*	3.43	
근무 분야	기획/예산	4.1209		3.8205		3.49	
	자치/총무	4.0000		3.6857		3.57	
	복지/문화	4.1457	.917	3.8382	.457	3.44	1.585
	경제/산업	4.2381	.454	3.8333	.767	3.21	.179
	환경/보전	3.9643		3.8500		4.00	
근무처	도청	4.2559	2.433	4.0567	4.297	3.60	2.030
	시/군/기타	4.0849	.016*	3.7289	.000*	3.39	.043*

[표 4]은 t-test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해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보활용, 조직수용, 그리고 직무만족의 정도를 평균값의 차이로 나타낸 것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만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는 정보활용과 조직수용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직무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남성(65.2%)이 여성(53.6%)보다 인터넷 활용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43], 조희경의 연구에서도 컴퓨터, 컴퓨터통신, 인터넷 이용에 있어 모두 정보이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44]. 이것은 공무원의 경우는 채용과정에서 전산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조직의 정보화에 대한 수용 차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대의 젊은 층보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급이 높은 5급 이상의 집단에서도 조직의 정

보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셋째, 근무처의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 정도, 조직의 정보화 수용정도, 그리고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보의 활용 정도가 높고, 조직내에서의 정보화 수용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업무의 관광관련정도에 따른 차이분석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의 정보인식 정도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정보활용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정보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관광업무관련 정도는 공무원 본인의 업무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3개 집단(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관광관련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조직 정보인식 정도는 조직 정보인식을 구성하는 변수의 합계를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정보활용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최고결정자의 이해정도 및 공무원의 관광업무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네 집단 간에 정보활용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높으면서 업무활용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해정도가 높은 집단(4집단)이 개인 정보 활용정도가 가장 높았고,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낮으면서 최고결정자의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은 집단(1집단)이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높은 집단(2집단과 4집단)과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없는 집단(1집단과 3집단) 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표 5].

업무의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정도 및 공무원의 관광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네 집단 간에 정보활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정지원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높은 집단(2집단)이 낮은 집단(1집단)보다 개인 정보 활용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결정자의 전자결재 활용도 혹은 컴퓨터 활용에

표 5. 관광업무관련성 × 조직 정보인식 정도에 따른 정보활용도 차이분석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보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최고결정자의 이해정도	1집단(저 관련/저 이해)B	63	3.8639	.57397	11.584	.000*
	2집단(저 관련/고 이해)A	112	4.2462	.41271		
	3집단(고 관련/저 이해)B	16	3.9286	.48093		
	4집단(고 관련/고 이해)A	56	4.2602	.42910		
업무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적절성	1집단(저 관련/저 지원)B	80	3.9768	.51455	11.584	.000*
	2집단(저 관련/고 지원)A	95	4.2195	.48099		
	3집단(고 관련/저 지원)	31	4.1290	.53115		
	4집단(고 관련/고 지원)	41	4.2300	.39754		
최고정책결정자의 전자결재 활용을 정도	1집단(저 관련/저 활용)B	36	3.7619	.59932	8.712	.000
	2집단(저 관련/고 활용)A	139	4.1984	.44400		
	3집단(고 관련/저 활용)AB	10	4.0857	.57222		
	4집단(고 관련/고 활용)A	62	4.2028	.44168		
최고결정자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권장정도	1집단(저 관련/저 권장)B	44	3.8571	.58213	6.412	.000
	2집단(저 관련/고 권장)A	131	4.1930	.45519		
	3집단(고 관련/저 권장)AB	17	4.0504	.56906		
	4집단(고 관련/고 권장)A	55	4.2286	.41659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도	1집단(저 관련/저 투명)B	42	3.9422	.56004	3.219	.023
	2집단(저 관련/고 투명)	133	4.1611	.48331		
	3집단(고 관련/저 투명)	15	4.0286	.52127		
	4집단(고 관련/고 투명)A	57	4.2281	.43688		

* p < 0.05 / A)B는 Scheffe법에 의한 Grouping

대한 권장정도와 공무원 업무의 관광관련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도 업무가 관광과 관련된 집단(2집단과 4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1집단)보다 개인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도 개선정도 인식이 높고 낮은 집단과 공무원 업무의 관광관련정도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투명도가 개선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집단(4집단)이 개선정도를 낮고 인식하고 업무관련성이 낮은 집단(1집단)보다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정보사회라는 커다란 물결 속에서 모든 조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조직의 적응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달라 질 수 있다. 관광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에 있어서도 정보화 활용정도와 소속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수용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활용정도, 조직내부의 정보화 수용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요약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공무원이 높은 정보활용도와 소속된 집단 내의 정보수용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6년부터 단계적인 정보화 추진목표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망 등 자금까지의 주된 관심사였던 정보기기의 접근에 있어서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보접근격차는 극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행정의 정보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보화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공교육의 비중을 높이거나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보활용 차이분석에

서는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집단과 시군청 근무 공무원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인 충북의 경우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속도가 떨어지거나, 직장가정에서의 컴퓨터 성능개선이 요구된다.

정보이용의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신형 PC의 보급, 초고속 인터넷이용의 확대와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높은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 사이의 정보활용 격차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무의 관광관련성이 높은 공무원들이 정보활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왔던 농산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업무차원의 정보활용에서 벗어나서 고급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정보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정보기기의 소유 및 접속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자신 또는 조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정보격차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지만, 특정지역인 충청북도 내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부족함과 함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성태,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의 전자거버넌스 구형", 디지털행정, 제25권, 제4호, pp.19-37, 2003.
- [2] 김용운, 공무원의 정보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 원주시와 횡성군을 중심으로, 상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전영평, 이관수, "정부의 정보화와 공무원의 적응행태: 경상북도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pp.191-214, 2000.
- [4] 김태일, "도수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21권, pp.341-366, 2005.
- [5] 국회도서관, 해외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 [6] 정보통신부, 성별정보격차 해소방안: 정보화 교육과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정보통신부, 2002.
- [7] 구자순, 김미선, 김효신, 고흥층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 [8] 손경미, 한국사회의 성별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 [9] 이미정,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2005.
- [10] 이경호, 공무원의 정보격차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울산-경남지역 정보통신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5.
- [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지수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12] 김진석, 공무원의 정보격차구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4.
- [13] 김용운, 공무원의 정보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4.
- [14] 김용순, 노인복지와 노인정보화, 광운대학교, 서울, 2005.
- [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16] 이경순, 이현석, e-러닝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습격차 해소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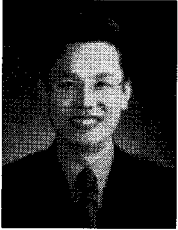
[1] 김성태,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의 전자거버넌스 구형", 디지털행정, 제25권,

- [17] 조선구, *취약계층 정보활용기회 확대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5.
- [18] 김현정, *노인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2005.
- [19] 천무영, *지역간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격차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2005.
- [20] 박영균 외,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교수법 개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22] 김경준, *청소년 정보소외 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23] 이진수, *농·어촌지역 정보불평등 해소방안 연구: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2005.
- [24] 이성우,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 [25] 이동필 외,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26] 김유향 외,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 [27] 전정란,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강원도지역 장애인 정보화교육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2006.
- [28] 임진이, *장애인의 대학교육 환경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6.
- [29] 강성종,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격차의 현실과 과제: 강성종 12월 간담회*, 강성종의원실, 2005.
- [30] 김태일, 도수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21권, pp.341-366. 2005.
- [3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웹 접근성 인식도 및 준수실태조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3.
- [32]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0.
- [33] 한화갑, *고도정보통신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서울: 한화갑 의원실, 2004.
- [34] 주관수, *도농통합도시의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성남: 주택도시연구원, 2006.
- [35] 박지선, *사용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및 대안*, 한양대 대학교, 2005.
- [36] 정동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정동채의원실, 2004.
- [37] 박영균 외,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3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의 대두와 효율적 정보활용*,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39] 오광석 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 한국전산원, 2003.
- [40] 한국전산원, *국제 정보화지수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 [41] 황혜선,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279-297, 1999.
- [42] 김진태, *도시간 정보화 격차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 [43] 김영애, *정보격차의 추이분석과 향후 과제*, 경상대학교, 2004.
- [44] 조희경, *우리나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요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저자 소개

지 봉 구(Bong-Gu Jee)

정회원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관광정보, IT, 문화 콘텐츠

박 구 원(Koo-Won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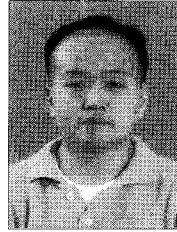


- 1992년 2월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공학사)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조경학 석사)
- 1998년 10월 : Kyushu U. 산림환경학과 (환경휴양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관광개발, 리조트계획, 공원녹지계획

박 진 우(Jin-Woo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0년 12월 :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항공경영학과 (항공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항공학과 (항공경영학박사)

- 2006년 7월 ~ 2007년 2월 :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
- 2007년 3월 ~ 2007년 8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 2007년 9월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항공경영, 항공관광, 항공운송